

# 아시아 문화자원 수집·분류·가공...예술창작의 원천

## 아시아의 창 문화전당

### 글 쓰는 순서

- 1 예술극장
- 2 어린이 문화원
- 3 문화창조원
- 4 문화정보원
- 5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은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4개원(어린이문화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에 창작 원천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시아 각국의 민족정서를 담고 있는 신화·설화 등 이야기, 건축, 춤, 음악, 의례, 축제 등 다양한 부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자료들은 디지털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문화정보원에 집적돼 예술창작자들에게 창작의 모티브로 제공되거나 예술적 영감을 주게 된다. 정보원은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문화기획자, 실무인력을 길러내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9월4일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이 공간은 문화자원을 수집·분류·보존하는 역할을 한다./최현배기자 choi@

### 문화원형을 예술자원으로

#### 설화서 건축까지... 콘텐츠 수집

문화정보원은 개관 콘텐츠를 라이브러리 파크(Library Park)에서 선보인다. 이 공간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공간으로 구성된 아시아 문화자원 관련 정보검색과 습득, 전시와 열람, 공유와 체험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다.

'지식의 생산과 대중화'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개관 프로젝트는 문화정보원이 그동안 축적해온 아카이브를 선보이는 것이다.

문화정보원이 수집한 콘텐츠는 모두 1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선보인다. 아시아의 공연예술, 퍼포먼스 아트, 전시, 크리에이터, 전자상가, 도시, 실험영화, 비디오 아트, 디자인, 사진, 근현대 건축, 아시아와 이주, 아시아의 이주 예술가, 소리와 음악 등이다.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눈길을 끄는 전시 콘텐츠는 '아시아의 책 : 지식생산 아카이브', '싱가포르 수교 40주년 기념 교류사업 : 싱가포르 아트 아카이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 '아시아의 근현대 건축' 등이다.

'아시아의 책...'은 아시아문화를 재해석하고 창조적 지식의 공유를 위한 콘텐츠다. 책이 지식과 정보를 수록한 기록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과 접목,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작품은 책을 통한 예술적 창작이다. 핫산 샤리프(아랍에미리트), 김구림, 성능경 작가가 참여한다.

싱가포르 아트 아카이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교류의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싱가포르와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싱가포르에서 예술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코노양 후우씨가 참여한다. 작품은 지난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중요한 예술 움직임에 대한 사진, 뉴스, 책, 포스터, 브로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노양 후우씨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색다른 예술세계를 보여오는 작가다. 그가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지난 2011년 싱가포르 비엔날레와 2014년 싱가포르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에 출품된 것이다.

### 아시아 특화 복합문화정보기관

#### 연구·교육 기능 겸비 인력 양성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를 연구하고 문화자원을 수집·활용해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핵심시설이다.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아시아문화아카데미, 라이브러리 파크는 연구와 교육기능을 겸하고 있다. 주요 공간으로는 국제회의실, 극장 3, 대강의실 등을 두고 있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자원 수집·활용, 아시아의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맡는다.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학제(多學制)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학술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문화전당의 콘텐츠 기획·개발 등에 필요한 배경지식, 이론적 기틀, 학술적 답안을 만든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출판활동 등을 통해 문화전당과 국내외 전문기관 및 연구자 간 학술교류의 장도 제공한다.

또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차세대 문화 연구자, 예술가, 큐레이터 및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이론·실습·비평 프로그램, 현장과 연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시아문화자원센터는 미래가치에 초점을 둔 아시아 문화자원을 조사·수집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영상,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한다. 자원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 정리·분류와 심화연구를 거쳐 온라인(가칭 컬처아시아)과 오프라인(라이브러리파크)을 통해 공개된다.

또 '라이브러리파크'는 하나의 주제 아래 도서, 기록물, 사진, 영상, 음향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로 이루어진 주제 전문관으로 구성된다. 이 공간은 기존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아카데미에서는 아시아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담론과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양성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개관 프로젝트로 선보일 라이브러리 파크의 전시 이미지.

## 박영선 의원 새 책

### 화제의 베스트셀러!

# "누가 지도자인가" 저자 사인회

- 일시: 8월8일(토) 오후3시
- 장소: 광주 영풍문고 (종합버스터미널 1층)

## 책에 퐁당 빠져 사는 사람들 '피서가 따로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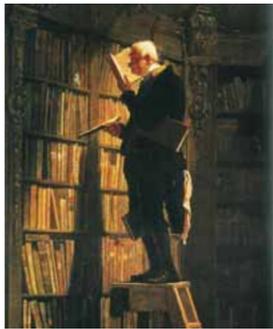
(121) 책벌레

'모든 곳에서 안식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다. 다만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예외였다'

독일 신비주의의 조용한 실천가이자 사상가로 이름 높은 토마스 아 쾰피츠(1380~1471)의 글귀가 특히 올 여름 가슴에 와 닿는다. 오랜만의 휴가로 모처럼 긴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내게도 한 여름 뜨거운 열기를 피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책을 들고 쏘그려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아두기만 해도 행복하고, 제목만 읽고 도다 읽은 것 같은 허세를 부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자발적 고립으로 책읽기에 몰두하는 건 꽤 만족스런 피서다.

독일 출신의 카를 슈피츠베크(1808~1885)의 '책벌레'(1850년 작)는 이런 상념에 있어왔을 시점에서 만난 반가운 그림이다. 책에 퐁당 빠져 사는 사람이라면 이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천장 끝까지 책이 가득한 서가에서 사다리에 올라선 책벌레는 왼쪽 겨드랑이와 다리 사이에도 이미 읽으려고 선택한 책을 한권씩 끼워놓은 상태에서 양손에 책 한권씩을 들고 있다. 그러고도 더 필요한 책이 있는 모



카를 슈피츠베크 작 '책벌레'(1850년)

양이다. 아마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서 사다리에서 내려 오랏동안 책을 읽을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화가 카를 슈피츠베크는 뮌헨대에서 약학을 전공하였으나 부유한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 소박하고 솔직한 자연관조에 바탕을 둔 거리 풍경이나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애환을 즐겨 그렸으며 특히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외골수가 작품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다시 보아도 책에 온전히 집중해 있는 진중한 외골수의 모습이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좋아하는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그림 속 '책벌레'에게 대리만족 해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